

지역 소식통

정읍시, 레지오넬라균 예방 총력...5일부터 실시

정읍시보건소는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레지오넬라균 예방을 위해 5일부터 다중 이용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다. 제3급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균은 관공서, 대중목욕탕, 숙박시설, 의료기관 등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균이 비말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돼 감염된다. 레지오넬라균은 누구나 감염될 수 있으나 주로 만성질환자나 면역저하자에게서 발생한다. 주 증상은 발열, 오한, 마른기침이나 소량의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 근육통이 나타난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레지오넬라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다. 시 보건소는 이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환경검체를 채취한 후 전염병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하계 휴가철 집중 방역소독 강화

고창군이 본격적인 하계휴가철을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8월 말까지 휴가철 집중 방역소독에 나선다. 집중호우가 끝나고 기온상승으로 감염병 매개체의 활동량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계휴가철인 8월말 까지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보건소 1개반과 읍·면 14개 반으로 소독반을 구성하고 해수욕장 및 캠핑장 등 주요 관광지과 마을길 571개 지역을 대상으로 모기활동이 왕성한 저녁시간대에 맞춰 휴가철 방역소독을 강화한다.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마을길 지역과 수풀이 많은 외곽이나 모기가 산란하기 좋은 웅덩이는 연막소독으로 인구 밀집 지역과 관광지는 연무소독으로 실시해 효율성 있게 추진된다. /고창=김영식기자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부안군, 1인 1평 갯벌 소유하고 가꾸는 '한평생 부안갯벌 프로젝트' 사례 발표

부안군이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에서 진행된 2024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기초자치단체의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하는 장(場)으로서 올해는 다시 쓰는 지방자치, 리질리언스란 주제로 7개 분야 우수사례를 공모한 가운데 전국 14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353개 사례를 응모했다. 군은 '한평생 부안갯벌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 환경보전과 탄소감축 기여, 생활인구 확보로 경제활력 제고의 성과를 인정받아 기후·환경·생태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한평생 부안갯벌 프로젝트는 블루카본의 보고이자 미래 탄소배출권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출포만의 갯벌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GS칼텍스·월드비전과 협업해 한사람이 갯벌 1평을 구입해 사유지 갯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염생식물을 식재해 갯벌의 탄소저장 능력과 탄소 흡수율을 높여주는 전 국민 갯벌가꾸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 포스코에너지, (주)디보전푸드 등과 함께 부안 갯벌에서 자생하는 합초 등 염생식물을 활용해 웰드한 포부민'이라는 비건식품 시제품을 생산하고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시식행사를 진행하는 등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5월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 최우수(SA) 등급 선정에 이어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은 공직자들과 군민들이 함께 이룬 성과"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 관광택시 요금할인 이벤트'

군, 8월 한 달간 총 요금의 50% 할인 진행

부안군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8월 한 달간 부안 관광택시 총 요금의 50%를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관광택시 총 요금의 50% 할인을 적용하면 3시간 코스는 6만 원에서 3만 원으로, 5시간 코스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6시간 코스는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낮아져 관광택시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요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부안 관광택시는 부안군의 다양한 관광지와 현지인 맛집 소개는 물론 관광객 개별 일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 왔다.

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이하여 더 많은 관광객에게 부안 관광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부안군은 매년 관광택시 기사의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고품질 관광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부안 관광택시는 사전 예약제(☎063-580-4712)로 운행되고 있으며, 3시간·5시간·6시간 코스별 요금이 책정되어 있고 관광객과 운전자가 코스에 대해 협의도 가능하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월 최대 9만원 추가 지원

정읍시는 8월부터 7세 이하의 장애(예견)아동에게 월 최대 9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시비로 확대 지원한다. 시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들의 정신적·감각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발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우체 사업으로, 언어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시는 시비 8800만원을 편성해 기존 25만원(정부지원금 포함)에서 9만원을 더한 총 34만원의 비우체를 제공한다. 지원 기준은 비우체사업과 동일하다. /정읍=김대환기자

며,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7세 이하의 장애아동과 영유아의 경우 장애가 예견돼 전문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보호자)는 8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비우체지원 기본 6회 서비스를 다 받을 경우 추가 2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희수 시장은 "발달장애아동의 추가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아동의 효과적인 재활 및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장기 장애아동의 재활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3년 연속 잔류농약 분석 능력 국제적 신뢰도 확보

정읍시농기센터, '2024 식품분야 국제수련도 평가'에 참여 높은 평가 받아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산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잔류농약 분석 능력 평가에서 3년 연속 국제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 연구원이 주관한 '2024년 식품분야 국제수련도 평가(FAPAS,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에 참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FAPAS는 잔류농약, 수질 등 10개 분야의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 평가 대회로, 신뢰도가 높아 매년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 분석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는 세계 57개 분석기관이 참가했다. 시는 오이 퓨레에 함유된 12종의 농약 성분을 분석해 Z-score(표준점수) -0.2~0.5 이하로 모두 만족을 받아 분석 능력을 입증했다.

Z-score란 평가에 참여한 실험실 간 오차 범위를 산출한 것으로, ±2 이하이면 만족, ±2~3 사이 의심, ±3 초과하면 불만족으로 판정한다. 오차범위가 0에 가까울수록 분석 결과가 정확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살충제 성분인 엔도살판 알파(Endosulfan alpha)는 0.0 판정을 기록, 최고 수준의 분석 정확도를 나타냈다. /정읍=김대환기자



선발된 공공근로자들은 70세 미만은 주 30시간, 70세 이상은 주 15시간 근무하며 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과 부대경비, 주휴·월차수당 등이 지급된다. 황인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취업이 어려운 군민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총 18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번은 3단계 사업으로,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진행 중인 일자리 사업 및 환경정비사업 등 55개 사업에 총 95명의 군민이 참여한다. 앞서 고창군은 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15~22일 참여자를 모집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올해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시작

고창군이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2024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올해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씩 총 3단계로 구성, 2월에서 4월까지 1단계, 5월에서 7월까지 2단계 사업을 진행,

고창군,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 집중관리

고창군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 내 요금단합, 불법 이용료 징수,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고창군은 오는 8월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피서객이 많이 찾는 구시포·동호 해수욕장과 주요 캠핑장 7개소의 주변 음식값,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을 중점 관리한다.

앞서 고창군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및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합동점검반은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주요 피서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균형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물가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가격인상 억제에 유도하고, 피서지를 중심으로 현장 모니터링 활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황인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고창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고창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ijmaeil.com에서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112' (Good Reporting 112).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The text encourages reporting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It lists various types of offenses such as child abuse, sexual harassment, and child labor. It provides the phone number 112 and the website www.ijmaeil.com for reporting. The slogan is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You who reports are a hero).